



#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확대 전망

최 원 선임연구원

■ 스위스리(Swiss Re) 조사<sup>1)</sup>에 따르면, 신흥국 민영건강보험(PHI)<sup>2)</sup> 시장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규모 측면에서는 2013년 세계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규모가 1조 52억 달러로 추정되는 데 신흥국은 360억 달러로 낮은 점유율을 나타냄.
- 그러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2003~2013년 세계 민영건강보험 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3.5%에 불과한 반면 신흥국은 11.2%로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임.

〈표 1〉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

구분	보험료 2003년	보험료 2013(E) <sup>2)</sup>	CAGR (2003~2013년)	보험료 2020(F) <sup>2)</sup>	CAGR (2013~2020년)
신흥국 전체	5.4	36.0	11.2	78.8	9.6
라틴 아메리카	3.6	14.9	6.8	25.3	6.2
중유럽·동유럽	0.1	4.3	12.1	6.2	5.0
중동 <sup>1)</sup> ·북아프리카	0.6	7.4	18.9	15.6	9.7
아시아 신흥국	1.0	9.4	19.0	31.8	15.4
세계 전체	518.7	1005.2	3.5	1475.7	3.2

주: 1) 터키를 포함함.

2) (E)는 스위스리 추정치이며, (F)는 전망치임.

자료: Swiss Re(2015. 2), "Keeping healthy in emerging markets: insurance can help".

■ 스위스리는 이와 같은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빠른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2020년 보험료 규모는 788억 달러, 2013~2020년 연평균성장률은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신흥국들은 임금상승, 인구증가, 도시화, 기술발전, 고령화 등 거시환경 변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

1) Swiss Re(2015. 2), "Keeping healthy in emerging markets: insurance can help".

2) PHI(Private Health Insurance) = medical + health insurance.

어날 것이며,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임.

-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공공부문 재원으로만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확대될 것이므로 민영건강보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2012년 신흥국 의료비 지출 가운데 민영보험회사가 보장한 부분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앞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의료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와 질적인 향상도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공공부문에서 담보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논의는 이루어질 것임.

-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보장하는 범위가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민영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 공공부문의 역할이 큰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장 환경에 적합한 옵션을 갖춘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민영보험회사들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sup>3)</sup>

■ 주요 신흥국에 대한 설문조사<sup>4)</sup> 결과, 국가별로 민영건강보험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민영건강보험 인지 수준보다 실제 상품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영건강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민영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장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양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특정 질병에 특화된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일부 신흥국에서는 민영건강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거나 업무 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도 함.

- 인도 정부는 건강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강보험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2006~2012년 이들의 연평균성장률이 89%에 달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회사들은 상품개발에서부터 보상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

3) 러시아 공공의료보험 경우 재원은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나 이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가능함.

4) 스위스리는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20~70세 2,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관리, 보험료 수급, 보험증권 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다른 회사(TPA: Third Party Administrator)<sup>5)</sup>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음.<sup>6)</sup>

(Swiss RE 등)

---

5)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보상관리, 보험료 수급, 보험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6) 단, 일부 국가들의 경우 TPA의 업무 범위와 책임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기도 하며, 선진 보험시장의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관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모든 업무가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선호함.